

안동시, 그린바이오 육성… 헴프산업 거점도시로 발돋움

권기창 시장
“지역경제 용광로 뜨겁게 달군다”
한국 대마산업 세계 4번째 규모
대마 난치병 치료제 전환 전망

안동은 2020년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입주해 의료용 헴프 산업화의 문을 열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시는 바이오 산업 분야 기업·기관을 유치하고 전방위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나가고 있다.

민선 8기 권기창 안동시장은 투자와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의 용광로를 뜨겁게 달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헴프 등 바이오 분야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기관, 기업체가 집적된 바이오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지역 청년들을 바이오 산업 인재로 양성해 장래성 있는 기업에서 미래를 꿈꾸며 터전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51조원의 녹색 금광 헴프산업, 전 세계 그린러시 주목

대마 씨앗이 몸에 좋은 슈퍼푸드로 알려지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마는 전 세계적으로 의료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대마는 마리화나와 헴프로 구분되는데, 특히, 헴프에 있는 CBD, 즉 칸나비디올이라는 성분이 뇌전증 등



권기창 안동시장이 임하 헴프 재배현장을 방문했다.

신경질환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이를 활용한 세계 의료용 대마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19세기 미국의 ‘골드러시’에 이어 대마 산업으로 자금이 몰리며 ‘그린러시’라 불리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25년 대마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0조 원으로 추산되며, 의료용 대마 시장은 연평균 22.1% 성장해 2024년 5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7번째로 대마 규제 완화가 포함되면서 국내 대마 산업화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 안동은 국가 바이오 산업 발전 선도할 최적의 도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 캐나다 다음 4번째로 대마 생산량이 많다. 국내에서는 천여 년 동안 ‘길

쌈’의 명맥을 이어온 안동포의 본고장인 안동이 대마 주산지이다.

이제 삼베 원료로 쓰이던 대마가 난치병 치료제 등으로 변신할 전망이다.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대마의 의료적 활용에 대한 부분적 특례를 부여받아 그동안 규제로 인해 불가능했던 헴프의 미수정 암꽃과 잎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배와 CBD 추출, 제조 및 수출 그리고 헴프 관리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총괄 주관기관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에이팩, 한국콜마(주), ㈜유한건강생활 등 30개의 국내 기업과 4개 기관이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안전성과 산업화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법률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 헴프 특구 지정 이후, 3년 차에 접어든 사업

지난해 정부 주치의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에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이로써 실증특례 연장을 받고 특구사업자들의 중단없는 R&D사업 추진 및 전주기 이력관리를 통한 보안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올해 바이오 산업의 미래 초석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창업 및 벤처 기업 입주공간인 ▲공공형 기업플랫폼 구축하고, 연간 2000명 이상의 글로벌 바이오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 훈련기관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국가산업단지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여 안동이 바이오생명산업 거점도시로 자립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올해 안동은 바이오 기업과 기관들의 연구·생산 활동 지원에 이어 입주공간 마련, 전문가 양성,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등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며 “헴프 규제자유특구 안동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헴프 산업의 거점도시로서 미래 헴프 산업 발전을 이끄는 데 나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안동(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대구시

아동 안전과 권리인식 교육 진행

대구시가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 지역아동센터대구지원단과 함께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은 아동을 돌보는 기관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해 위험 발생을 방지하여 아동 권리 인식 증진 및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2021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함평군

‘함평 한 달 여행하기’ 모집

전남 함평군이 장기여행 체험 프로젝트 ‘2023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in 함평’ 참가자를 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본 프로젝트는 함평을 관광하며 군에서 제시한 홍보과제를 수행하는 관광객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가자격은 만 18세 이상 광주·전남 지역 외 거주자로 함평 여행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가자는 7~30일 동안 자유여행을 하면서 여행후기 작성, 나만의 함평 숲은 명소 발굴하기 등의 여행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여행을 하며 모든 과제를 수행하면 숙박비, 교통비, 식비, 체험활동비 등 1일 최대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함평(전남)=양수영 기자



하동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통과에 따라 농촌협약 및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하동군

하동, 농촌공간정비 힘 받는다

군, ‘농촌공간계획법’ 통과
용도별 특화지구 지정 가능

하동군이 농촌지역도 장기계획을 세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하 농촌공간계획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농촌지역은 도시와는 달리 그동안 공간에 대한 계획 수립 부재로 일부 농촌 마을의 경우 공장, 축사, 위험물 시설 등이 관리되지 않고 주거지 인근에 세워지는 등 저개발·난개발이 많았다.

이 때문에 정주 여건 악화로 인구 유출 및 지역 소멸 위기 심화로 이어져 농촌다움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다.

이번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으로 농촌공간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구획화 개념을 도입해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에너지, 경관 등 목적에 따라 기능에 알맞은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7개를 포함하며 지자체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해 지정할 수 있다.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에 따라 하동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정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농촌협약 및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농촌공간계획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촌지역도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하동만의 농촌 특색을 반영한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교육청 ‘따뜻한 행복교육’ 확대 운영

17일까지 접수 200개교 신설 운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생들의 긍정적 마인드 함양과 행복 경험 지원을 위해 올해 ‘따뜻한 행복교육’ 사업을 확대 운영하며, 오는 17일까지 공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첫 해인 2022년에는 행복 실천학급 1000학급과 행복교육 교원학습공동체 20팀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학교현장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행복 실천학급 1683학급과 교원학습공동체 40팀을 운영했다. 이러한 현장의 적극적 참여를 반영해 2023년에는 ‘행복 실천학급’ 1800학급, ‘행복교육 학습공동체’ 50팀으로 확대하고 ‘따뜻한 행복학교’ 200교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행복 실천학급’은 ▲행복교과서를

활용한 행복 수업 운영 ▲교육과정 및 학교 특색 사업 연계 행복교육 실천 ▲학급 구성원이 직접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급 프로젝트 등의 운영이 가능하며, 학급당 1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행복교육 교원학습공동체’는 ▲교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행복수업 사례 발굴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교사의 역할 연구 등으로 운영되며, 팀당 2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따뜻한 행복학교’는 2023년에 신설되는 영역으로 ▲학교 단위 행복 버스킹 ▲참여와 소통이 있는 학교 자치 활동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활동 등 학교 단위에서 행복을 실천할 수 있는 주제로 운영되며, 교당 1000만 원 내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경북=이상호 기자

울산시,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 탄력

울산대공원 2026년 완공 목표

울산시가 추진 중인 ‘국립 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립 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이하 전문과학관)은 전국 최초의 탄소중립분야 핵심 과학기술 전시 및 보급·확산을 위한 시설이다.

사업비는 총 487억 원 정도로 추산

되며, 울산대공원 구(舊) 유류부대 부지 내 2024년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울산시는 전문과학관이 이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은 만큼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전라남도

대학생 도전과제 실현 돕는다

전라남도가 지역 대학생이 도전 과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2023년 대학생 무한도전 프로젝트’ 참여 팀을 모집한다.

전남지역 대학생이나 전남에 주소를 둔 광주권 대학 재학생과 멘토를 포함해 4명 이상으로 팀 단위를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20개 팀 내외를 선정, 팀당 최대 1천만 원의 프로젝트 수행비를 지원한다.

/전남=양수영 기자

고흥군

사이버 농업인 교육생 모집

고흥군은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경영기술 확산을 위해 2023년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리더 양성과정’ 교육생을 3월 2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4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주 1회(목요일), 총 15회 과정으로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경영기술 습득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고객 관리 ▲온라인상 마케팅 전략 ▲미래 소비환경 트렌드에 맞는 농장소개서 작성 기술 ▲농산업 e-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이다.

신청방법은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교육정보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농업기술센터나 읍·면사무소(산업팀)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고흥(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